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개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무령군 군중소장

절도사에게 무술 실력을 인정받은 장보고와 정년은 입대한 지 며칠 만에 군관으로 승진했다. 무령군 군관은 1백여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지휘했다. 그런데 무령군 군사란 오합지졸이었다. 소작농 출신들이 많아서 팽이 같은 농기구는 잘 다루지만 칼과 활을 한 번도 손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활쏘기 뿐만 아니라 산자락으로 데리고 가서 편을 나누어 공격과 방어전술도 가르쳤다. 미산포 별장에게 배운 대로 전투대형과 전술을 반복해서 훈련시켰다. 그러자 무령군 내부에서 금세 소문이 났고, 이윽고 절도사가 무희들을 보내 위로공연을 열어주기도 했다.

장보고와 정년의 활동은 무령군 전체가 분발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당에 귀화한 신라인 군관이 찾아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했다. 최훈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최훈은 박식했다. 최훈을 처음 만났을 때였다. 정년이 자신을 소개하자 웃으며 반박했다.

“지는 신라 탐진에서 온 정년이라고 허그만요. 당구덜을 목인하는 반란군 수괴 이정기를 잡을라고 무령군에 입대했지라우.”

“이정기는 죽은 지 30여 년이 넘었소. 그의 아들 이납도 죽었소. 또 이납의 아들도 죽고. 죽은 귀신들을 어떻게 잡는다는 말ियो? 하하하.”

“그라믄 시방 반란군 수괴는 누구당가요?”

“밤이 되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소. 이정기 일가의 얘기를 해주겠소. 지금은 이정기의 손자가 운주 절도사 행세를 하고 있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디 나도 알고 짚소.”

장보고는 침대 밑에서 토기항아리를 꺼냈다. 토기항아리에는 고량주가 들어 있었다. 속이 더부룩할 때 마시려고 구해둔 술이었다.

“술로 목이라도 축이쎄요. 그래사 말이 술술 풀리겠지라잉.”

“아이고, 무령군에 금주령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소? 술만 마시면 군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병마사께서 며칠 전에 금주령을 내린 것이요.”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자 무령군 병마사가 며칠 전에 금주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었다. 장보고와 정년은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휘계통이 질서가 없고 군관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장보고가 말했다.

“그것도 모르고 군율을 어길 뻔해부렀소.”

“하하하.”

“최 군관은 내 말이 우스와부요?”

“장 군관, 안심하십시오. 군관들끼리 밤에 한 잔 마시는 것은 병마사께서 이해한다고 했소. 다만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시니까 금주령이 내려진 것이요.”

그러자 정년이 곧 자신의 침대에 술자리를 만들었다. 안주는 오이가 나왔다. 농부에게 고량주를 살 때 은전 한 닢을 주자 오이를 한 바구니나 주었던 것이다. 당나라 군사 대부분은 오이나 무를 생것으로 먹지 않았다. 때문에 정년은 농부가 준 오이를 다 가져올 수 있었고, 침대 밑에 안주거리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술이 한 잔 오간 뒤 장보고가 말했다.

“죽었다는 이정기 얘기부텀 해보씨요.”

“아하, 술값은 해야지요.”

최훈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 20여 만 명의 포로가 압록강 이남에서 요동으로 끌려왔다는 이야기부터 했다. 그러니까 요동 영주 태생인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의 아들이었다. 이정기는 26세에 ‘안사의 난’ 토벌군에 들어갔다.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서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서

였다. 이정기는 기마군사인 유격대를 이끌고 산동반도 등주로 이동한 뒤 본거지를 청주로 옮겼다. ‘안사의 난’이란 당 현종 때 일어난 반란이었다.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의 반란을 ‘안사의 난’이라고 불렀다.

산동반도는 당나라에서 소비하는 소금 절반을 생산하고, 철과 구리의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정기는 30세 때 고종사촌인 후희일을 절도사로 추대하고, 자신은 2인자인 병마사가 되어 전투를 지휘했다. 이후 이정기는 32세에 후희일과 함께 평로, 치청, 기주, 제주, 해주, 밀주 등의 지역을 통치했다.

이정기는 35세가 되자 후희일을 몰아내고 청주 절도사가 되었는데, 이정기 번진은 당 조정에 세금을 내지 않을 만큼 연합국 같은 독립 번진으로 부상했다. 이정기의 군사는 용교를 장악함으로 해서 더욱 강성해졌다. 용교는 당나라 낙양과 장안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운하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산동반도의 15개 성을 다스리던 이정기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45세 때는 덕주 등 2개 성을 더 얻고, 마침내 47세에 청주에서 낙양이 가까운 운주로 도읍을 천도했다.

이정기는 49세에 장안을 함락시키기 위해 낙양으로 진격을 명했다. 명분은 이정기의 동맹군인 이보신이 죽자 당 덕종이 그의 아들 이유악에게

절도사를 세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정기의 10만 군사는 낙양으로 진격하는 동안 제음벌에서 당 덕종의 방어군과 맞섰다. 그런데 이정기는 낙양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낙양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병사했던 것이다.

최훈이 고량주를 한 잔 더 훌쩍 마시고는 안주감인 오이를 우걱우걱 씹었다. 오이 한 개를 다 먹어치운 뒤 말했다.

“황제님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했던 이정기 절도사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조정에서 보낸 자객에게 죽었는게라우?”

“천하를 얻을 듯 호령하던 이정기가 49세에 허망하게 죽었어요. 평소에 달고 다니던 악성종기가 온몸에 퍼져 죽은 겁니다.”

“사자가 쪼끄만 사자충으로 죽어볼데끼 이정기 세상은 고로코름 끝났 그만요.”

“아니요. 이정기 나라는 그의 아들 이납이 계승했어요. 이납도 이정기 못지 않았어요. 당 황제는 이납을 달래려고 관직을 주었지요.”

당 덕종은 이납을 회유하기 위해 ‘검교공부상서 운주자사 평로절도사 치청관찰사 검교우복사 동중서문하평사’라는 긴 관직을 주었다. 검교공부상서는 황실의 재상 급이었다. 그리고 철권(鐵券)을 하사하고 농서군

왕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철권은 직할 영토의 사법권 일체, 즉 사형권에서 사면권까지를 주겠다는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이정기의 맏아들 이납은 당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제나라를 건국했다. 문무백관을 임명하고 법전을 정비했다. 그런데 이납의 통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납 역시 악성종기 때문에 35세로 요절했고, 제나라 왕위는 그의 아들 이사고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사고 뒤를 이어 이정기의 아들이자 이납의 이복동생인 이사도가 제나라를 다스렸다. 이처럼 이정기 일가가 산동반도 일대를 통치한 지는 47년이 됐고, 이사도가 제나라 왕이 된 지는 벌써 5년이나 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령군이 토벌하려고 하는 상대는 이사도와 그의 군사였다. 이사도는 여전히 강군 10만 명을 가지고 있었다. 제나라는 당 황제의 지시를 번번이 무시하는 산동반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국 같은 번진이었다. 최훈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장보고가 말했다.

“인자 알겠그만요. 내가 싸울 상대는 이사도그만요. 나는 첨부텨 이정기 일가에게 반감이 컸지라우.”

“어째서 반감을 가진 것이요?”

“우리 바다를 모지락시럽게 땡기는 당구덜을 묵인헌 위인인디 어처케 반감이 안 들겠소?”

“아, 이해하겠소, 그래서 나도 무령군에 입대한 것이요.”

실제로 무령군에는 이정기 일가에 반감을 품은 신라 유민들이 많았다. 정년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공께 두 성님덜끼리 의기투합을 허시고 있그만요.”

최훈이 정년에게 말했다.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이나 신라 유민이나 다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나도 이정기 일가의 태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네. 오죽하면 무령군에 들어왔겠나.”

무령군이 창설된 시기는 당 순종 원년이였다. 낙양을 위협하는 제나라가 있는 한 당 덕종 시기처럼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이였다. 또한 산동반도는 물산이 풍부해 당 조정에서는 언제까지나 고구려 유민에게 땅을 내어줄 수 없는 형편이였다. 최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간 뒤 장보고가 정년에게 말했다.

“오늘 최 군관에게 많이 배워부렀다야. 촌장님 배에서 행수 노잡이에게 들은 얘기를 믿고 행동했다가는 나만 멍충이가 될 뻔했다야.”

“노잡이덜이 뭇을 안 다요? 평생 배 안에서 묵고 자는 사람덜인디.”

“궁께 말이여. 이정기가 살아 있는 줄 알았는데 30년 전에 죽은 구신
이랑께 혈 말이 읍다야. 그 아들도 죽고, 그 아들의 아들도 죽었던께
은제 켜에 이야기난 말이여.”

장보고와 정년은 비로소 이정기 일가의 나라인 제나라의 실체를 알았다.
제나라 도읍이 운주이고, 운주에서 낙양은 75리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실감했다. 그러니 당 황제는 제나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남과
북의 물산이 운하를 통해서 만나 낙양으로 가고, 군사적으로도 낙양이
제나라에 넘어가면 당 수도 장안은 고립을 면치 못할 터였다. 낙양과
장안은 불과 125리 거리이므로 이사도 대군이라면 파죽지세로 진격할
것이였다.

장보고는 최훈과 대작해서 마신 탓에 오랜만에 얼큰한 취기를 느꼈다.
그러나 정신이 흐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정년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군막 너머 산자락에서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쩍새 소리에 정년이 말했다.

“성님, 저 새가 여그도 있그만요잉.”

“쭈꿈샌가?”

“이이고메, 성님. 꾸꿈새는 낮에 꾸꿈꾸꿈 허고 울지라. 소쩍소쩍 허고
운께 소쩍새라고 안 허요.”

탐진사람들은 뼈꾸기를 꾸꿈새라고 불렀다. 그러나 취기가 오른 장보고는
잠시 헛갈렸다가 소쩍새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맞네, 맞아. 밤에 피를 토하데끼 우는 저 놈은 소쩍새여.”

“아까침에 쑥독쑥독 허고 운 새는 머심새고라우. 엄니가 무시를 써는
소리멧기로 쑥독쑥독 허지라.”

“동상이 쑥독새를 말헌께 에렸을 때 돌아가신 엄니 생각이 나네.
우리가 비록 무령군에 와 있지만서도 어처케 엄니를, 고향을 잊어불
겠는가.”

“그래라우. 낮에 훈련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다가도 밤에 잠들라고
허믄 반다시 탐진사람들이 그립당께요.”

장보고는 최훈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산동반도가 떠올랐다.

“산동반도에서 굶는 소금이 요로코름 많은지 놀라부렀네. 나는 소금이
은가루멧기로 겁나게 부럽드랑께. 은가루를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산동반도 사람덜이드란 말이여.”

“으디 흐건 것이 소금만 있당가요. 당나라 사람덜이 묵는 밀가루도 있고 쌀도 있지라. 허기사 배식군관 말로는 산동반도에서 나는 쌀이 당나라 사람덜 입에 들어가는 쌀이라고 험디다.”

“우리 탐진에 산동반도 같은 땅이 있다믄 을매나 좋겠는가.”

“아따, 성님. 말같은 소리를 허씨요. 당나라 산동반도를 어처케 탐진으로 옮기겄소.”

“동상, 내가 부러와서 한 번 해본 소리네.”

“성님, 불가능헌 일도 아니요.”

“뭇 소린가?”

“이정기 일가가 산동반도를 다스리데끼 그놈덜을 몰아내고 성님이 다스리믄 되지라.”

“동상 말도 그럴 듯허네. 땅이사 어처케 옮기겄는가만 내가 주인이 돼볼믄 그라겄네.”

“글고 성님이 말했지라. 산동반도에는 가리포허고 비슷한 적산포도 있고 현께 다른 디보다 맴이 고향팬치로 편허겄지라.”

정년은 장보고를 놀라게 했다. 장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순찰을 도는 군사의 발걸음 소리가 자박자박 들려왔다. 산동반도를 다스리고 있는 이사도를 토벌하기 위해 무령군에 입대했는데 훗날 자신이 이사도를 대신한다는 것도 또 다른 반역일 터였다. 그러나 장보고는 그런 야심

까지는 없었다. 산동반도의 풍부한 물산이 부럽고, 가리포와 같은 적산포의 풍광이 마음에 들 뿐이었다.

장보고가 입을 다물자 정년도 침묵했다. 기발한 상상을 해놓고 스스로 생각해도 엉뚱해서였다. 그러나 장보고는 상상의 날개를 접지 않았다. 포기했다가도 곧 다른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장보고의 집념이기도 했다. 소쩍새 울음소리가 똑 그쳤다. 군막 가까이까지 날아와 울다가 먼 숲속으로 돌아간 것이 분명했다. 소쩍새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만도 장보고의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물에서 살다가 가리포로 들어온 장보고의 부모가 어설픈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변을 당한 때가 여름철이었다. 가리포에서는 이른 봄부터 한 여름까지 밤이 되면 소쩍새가 마을 부근까지 내려와 울었다. 장보고는 소쩍새 울음소리만 들으면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부모가 떠올라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정년은 장보고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소쩍새 이야기를 꺼냈다가 잠이 들었는지 코를 골았다.

2년 후.

장보고는 무령군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었다. 군중소장은 1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휘하는 장수 급이었다. 정년은 장보고 휘하의 전투

부장으로 어디를 가든 심복으로 활약했다. 신라인이 2년 만에 군중소장 지위에 오른 것은 드문 일이었다. 군관이 된 것도, 군중소장이 된 것도 모두 특진의 결과였다. 그만큼 장보고는 당인들 속에서 신분상승을 했다. 정년도 바늘과 실처럼 장보고를 따라 특진했다.

장보고의 군중소장 소식은 산동반도 일대와 명주에 있는 신라방과 신라촌까지 소문이 났다. 산동반도 성의 절도사 휘하에 고구려 출신의 병마사는 있었지만 당 황제가 지원하는 무령군에서 군중소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경사였다. 군중소장이 된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운하의 요충지인 용교를 점령했다. 장안 황실에 보고가 올라가자 병부상서가 춤을 추며 기뻐했다. 장보고는 재당신라인들 사이에서 일약 유명인이 돼버렸다. 재당신라인들은 어디서나 장보고의 무용담을 이야기했다. <계속>